

11

하나님을 경외한 욥

욥기 1:1~2:10, 42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열 명의 자녀가 있었고,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네가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사단: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물과 자녀를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재산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의 몸은 해치지 말아라."





욥은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과 열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은 슬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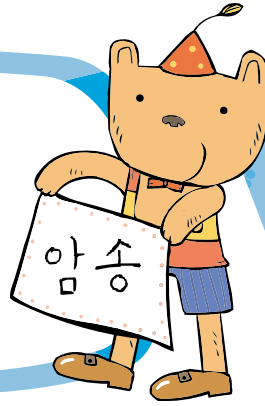
하나님: "자, 보았느냐? 욥은 오히려 자기 믿음을 지켰느니라."

사단: "그것은 욥의 몸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을 병들게 한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욥을 네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노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홀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11)



11

이번에는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욥은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 "그래도 당신의 믿음을 지킬 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욥: "당신의 말이 정말 어리석구려. 하나님께서는 복도, 재앙도 다 주시는 분이시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한 욥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다시 건강해지고 재산도 두 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열 명의 자녀를 두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악창: 지독한 피부병



오늘의 공부

고난을 당한 욥

1.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 아주 큰 부자였어요 ➡ (욥기 1:13~17)

● 열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 (욥기 1:18~19)

● 건강했어요 ➡ (욥기 2:7)

2.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고난을 받을 때

1. 이유없이 큰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욥이 했던 말을 찾아서 적어 보세요.

욥기 1:21



욥기 1:20



2.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배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11)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읊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이야기를 읽고 대답해 보세요.

철희



구원 받은 철희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그럴 때마다 영철이는 철희에게 장난을 치고 놀렸어요. 화가 난 철희는 영철이에게 욕을 하고 싸웠어요.

철수



철수는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께서 병이 들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며 참고 살아갑니다.

1. 여러분이 철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2. 여러분이 철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 여러분이 잘 참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써 보세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읊처럼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13)



알아볼까요

날지 못하는 나방

알프레드 웰레스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하루는 나방의 새끼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여서 웰레스는 고치를 찢어 주어 나방이 아주 쉽게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나방은 날개만 파닥거릴 뿐 날지 못하였습니다.

웰레스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방이 고치를 찢으며 빠져 나오려고 애쓸 때, 날개의 어깨 부분에 몰려 있는 영양분이 날개 전체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고치에서 나온 나방은 곧바로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치를 찢어 쉽게 나온 나방은 영양분이 날개에 퍼지지 않았기에 바로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더 자라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
란

선생님
란